서울주보

제2445호 2023년 4월 30일(가해)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천상의 문 | 이남규 루카, 445x200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1989년, 마산 가르멜수도원

입 당 송 |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4ㄱ.36-41

화 답 송 | 시편 23(22),1-3ㄱ.3ㄴㄷ-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1베드 2,20ㄴ-25

복음환호송 |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 요한 10,1-10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tv 297번 / U+tv 274번

생명의 말씀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한 10,3)

전진 세례자요한 신부 | 동성고 예비신학생 담당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속 왕자의 별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날아와 꽃을 피웁니다. 왕자는 참 아름답고, 그만큼 예민한 한 송이 꽃을 뒤에 남겨두고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행성을 거쳐 지구에 도착한 왕자는 한 정원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만의 꽃으로 알고 있었던 소행성의 유일한 그 꽃과 똑 닮은 꽃들이 무려 5천 송이가 넘게 피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같은 교복의 학생들이나, 동일한 군복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남다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교복의 파도 속에서 딸의 뒷모습을 찾아내어 이름을 부르고, 훈련소의 파르스름한 까까머리 속에서도 아들의 이목구비를 구분해 내고야 맙니다. 몰개성의 무리를 뚫고 얼굴을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힘은 언제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힘은 그야말로 대단해서 군중의 한 조각에 불과한 누군가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빛나게 합니다. 언뜻 보면 절대로 구별되지 않고, 무리로 몰려다니는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지팡이를 따르는 것 역시 목자가 양들을 단순히 양 떼라는 덩어리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기억하고 안아주기 때문입니다.(요한 10,3) 목자의 목소리 앞에서 양들은 더 이상 무리의 아무개가 아니라, 이름을 기억하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인격적인 역사를 함께 쌓아갈 수 있는, 대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뜻하는 '성소(聖召)'는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다정한 목소리이자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곁에 우리들이 영원히 머물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나아가 그 응답으로, 당신을 닮아 같은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귀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입술로 응답하여 성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목자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은 양들은 그 목소리에 응답을 시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보기 좋아하셨던 태초의 미소를 생각하며 말씀으로 스스로를 채우고, 당신이 흐뭇해할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정성 들여 심게 됩니다. 그렇게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깨달은 착한 양들은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의 삶으로 또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지만, 사랑의 부르심은 결코 마르지 않아 얻고 또 얻어 세상에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요한 10,10)

이제 어린 왕자는 왜 자신의 꽃이 정원의 장미와 다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목소리로 길들여져 서로에게 책임이 생긴 그 장미는 다른 무엇으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그만의 장미가 되었습니다.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목자의 사랑과, 기꺼이 그 목소리에 길들여지기를 택한 모든 착한 양들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요한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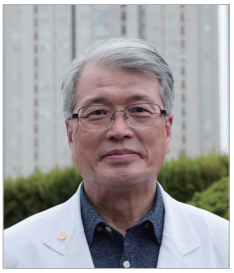
작품 설명

생드니의 쉬제르 주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을 보여주는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천상의 예루살렘을 지상에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빛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공간을 물들인 빛은 점차 우리에게 젖어들어 내면에서부터 참된 자아에 이르게 하는 통로를 보여줍니다. 조용히 나를 물들인 빛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의료봉사의 맛을 알게 해준 전진상의원



고영초 가시미로
요셉의원 병원장

지난 성목요일에 금경축을 맞으신 김중호 신부님은 서울의대 선배이자 사제로서 저를 지금까지 봉사할 수 있게 끔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가톨릭학생회(CaSA) 지도신부님으로 학생회(CaSA)가 난곡에서 주말 진료를 하고, 학생회(CaSA) 출신 의사들이 전진상의원에서 봉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국제가톨릭형제회(AFI) 회원들이 운영하는 전진상의원은 시흥2동 달동네에서 김중호 신부님께서 1975년에 시작하셨는데, 저는 의사가 된 1977년에 그곳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의가 되어 군의관으로 입대하기 전,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 5년 동안의 봉사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전진상의원에서는 매년 2월 초 봉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주셨는데, 미사를 집전해 주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강론을 통해 봉사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 직후 1985년 5월 한림대 부속 강남성심병원에서 교수직을 시작하면서 퇴근길에 인사차 전진상의원에 들렀습니다.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들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다시 봉사할 거죠?"라고 묻기에 얼떨결에 "예."라고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퇴근길에 신경외과 환자들을 보았는데, 가정의학과를 전공한 원장님이 초진 환자를 보시고 시간 맞춰 오게 했습니다. 신경외과 진료가 자리를 잡아가자, 심장내과를 비롯해 정신과, 비뇨기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진료가 필요해져 저는 병원 동료와 대학 선·후배 교수들을 전진상의원 봉사로 이끌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강남성심병원에서 수술받도록 해,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들은 '강남성심병원이 전진상의원의 부속병원이 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제게 '의사 낚는 어부'라는 싫지 않은 별명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중 이00이라는 24세(1993년 당시)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어릴 때 뇌종양 진단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었는데, 시력 상실 상태로 간질 발작이 심해져 내원했습니다. 시티(CT) 촬영에서 심한 뇌부종을 동반한 주먹 크기의 종양이 원인으로 밝혀져 수술로 완치시킨 일은 아직도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에 들어와 기댈 곳 없는 환자들을 돌보는 전진상의원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들은 제가 진료소에 도착하면 환한 미소와 맛있는 음식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재밌는 유머로 병원에서 쌓였던 피로를 한순간에 녹여내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저는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어 오늘날까지 의료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진상의원 잔치 때마다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 주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은 저를 지금까지 꾸준한 의료봉사자로 남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학창시절부터 저를 봉사로 이끄신 김중호 신부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컷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성사'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가톨릭 신학

12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며” 2: 참으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동정녀로부터의 탄생 사화는 마르코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두 복음서가 이 사화를 통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고백하듯이, 사실 이 두 복음서의 의도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두 복음서 모두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복음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1,1)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세례 사화에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들렸다고 전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형태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14)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하느님과 함께 계신 분,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외아드님,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네 복음서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편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이라는 신앙고백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보다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니케아신경(325년)에 근거한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381년)입니다. 그런데 니케아신경에는 단순하게 “몸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셨으며”라고 나옵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이것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라고 더 풍요롭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니 표현이 추가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간이심을 부정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역사’ 안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표현을 추가합니다. 이를테면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묻히셨으며”, 등등입니다. 그 추가된 것 중 하나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입니다. 이 표현들은 실제 사람 이름을 언급하거나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묻히셨으며’라는 표현처럼 실제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으며, 비록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인간 삶의 모든 조건을 당신 것으로 삼으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신앙고백은,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며 동시에 참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히브 2,17)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사도들의 수난
(사도 4,1-31; 5,17-42)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치유 행적과 설교는 사두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최고 의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유다 최고 의회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유다인들의 정치, 종교, 사법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던 의결 기관입니다. 이 최고 의회의 권력은 두 주류,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가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사제를 중심으로 부판관, 그리고 69명의 평회원을 포함한 총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구성원의 숫자는 같은 수로 구성된 이스라엘 원로단(탈출 24,1)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다 지역을 다스렸지만, 사형 제도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사법 체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회는 명실상부한 유다인들의 최고의 권력 기구였고,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미움을 사게 되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최고 의회와 대립하였고, 결국 최고 의회는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죽인 과오에서 비롯되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사도 4,11) 이 선포는 시편 118장 22절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은 쓸모없이 버려진 돌처럼 유다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키시어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유다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에게는 율법의 실천만이 구원의 결정적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결정적 구원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최고 의회는 이러한 충격에 사도들을 위협하고 공영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5,17-18 참조) 그러나 복음 선포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최고 의회는 그들을 다시 붙잡아 매질한 다음,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합니다. 이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5,41)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고난을 없애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도들은 다가오는 고난을, 신앙을 통해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겪은 것을 똑같이 겪음으로써 하나 되었다는 믿음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지워버리는 신앙이 아닌 믿음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아플 때만 찾는 하느님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으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많이 듣고 쓰는 표현인데요. '현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현존이 '물리적' 현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삶에 '현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는 상관없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요? 출근해 있어도 온종일 '몸은 어떤가?' '병원엔 다녀왔나?' '약은 챙겨 먹었나?' 하고 걱정하겠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의 하루 안에 그 가족 구성원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성당에서, 성체 앞에 앉아있을 때만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구체적인 순간들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쉽지 않죠? 자꾸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평소 별 탈이 없을 때는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치면 하느님을 찾곤 합니다. 그리곤 생각하죠. '내가 또 하느님을 잊고 지냈구나! 아쉬울 때만 하느님을 찾는구나!'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듭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본당에서 초등부 저학년 신앙학교 때 물놀이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참을 재밌게 뛰어다니다가, 제 근처로 오면 두 팔을 벌려 제게 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아이가 있어서 얼른 가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아이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울면서 자기 엄마 아빠를 찾아 뛰어가는 겁니다. 저야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 녀석 봐라? 신나게 놀 때는 우릴 찾지도 않더니, 넘어져서 아프고 서러우니까 그제야 찾아오네?' 하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억하든 못 하든, 달려가 찾든 찾지 않든, 부모는 늘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부모를 찾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지내더라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느님을 찾더라도,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반겨주십니다. 나는 이미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영성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17,21)

삶과 죽음 사이

김다솔 야고보 신부 | 필리핀 요셉의원

얼마 전 장학생들을 위한 미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의 전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신자석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맥박과 호흡마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의를 입은 채로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의식을 찾았고 함께 있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급히 오토바이에 태워 응급실로 보냈지만, 아이는 5시간을 대기하고 나서야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척이나 분노했지만, 다행히 요셉의원 소아과 진료가 다음 날이었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지만 아이가 별 탈 없이 깨어났음에, 또 우리가 병원이라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어느 월요일, 의무원장 선생님께서 급하게 제게 오셨습니다. 그날도 진료가 있는 날이기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던 저는, 요셉의원 입구에서 조그만 상자를 든 모자(母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날 새벽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 조그만 상자에 시신을 뉘어 장례를 치러줄 성당을 찾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열려있는 곳이 없어 요셉의원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제의만 급하게 입고, 분향도 성가도 없이 고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원은 이곳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병원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병이나 상처뿐 아니라 심각한 질병으로도 많은 환자분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 각종 검사와 수술, 입원 치료 심지어는 식료품 지원을 하고 집을 지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와 미사 봉헌 외에 해드릴 게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생각보다 죽음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영원한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묵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는 우리는, 사실 영원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죽음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음을 믿을지, 영원한 생명을 믿을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치유는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땅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믿는다면 치유란 아무 소용 없는 것이 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삶을 사랑할 이유도, 희망을 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단지 과정이기에 우리는 삶을 사랑하고 나아갑니다. 영원하고도 온전한 천상의 생명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치유를 바랍니다. 결국, 요셉의원이 나아갈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치유를, 그리고 돌아가신 연령들에게는 기도를 바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요셉의원 후원 문의: 070-4688-3412 (통화 가능 시간: 13-17시) |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재)천주교서울대교구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2023년 5월 4일(목) 오후 2시,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김재원 베드로 샤넬 신부(대만 선교)

후원 ARS 1877-1336
또는 QR 코드 접속

오늘(4월 30일)은 '부활 제4주일'로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 계발과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성소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6년 5월 2일 김재용 요셉 신부(29세)
- 1981년 5월 7일 정규만 마르코 신부(66세)

신앙의 동반자
가톨릭 하상

한국 천주교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 헌신하고 순교하신 정하상 바오로의 굳은 신앙을 본받아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길잡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가톨릭페이(Catholic Pay)
교 무 금 | **미 사 예 물**
주 일 헌 금 | **기 타 헌 금**

가톨릭 하상 다운로드 ···› iOS용 안드로이드용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교구청 알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미사
주례: 유경촌 주교
때, 곳: 5월7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주관):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2023년 월요 성경통독(사목국)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미사 /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 기초과정 6기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 프로그램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 참조
때: 5월10일~6월28일 매주(수) 20시~21시30분(총 8주간)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ZOOM) / 5월3일(수) 마감
회비: 5만원 /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 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2일(화)~24일(수)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업홀(전철 1 · 4호선 서울역, 2 · 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여름학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앙상블	그레고리오성가(남 · 여) · 성악(남 · 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27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7월7일~15일(8박9일) / **주관:** 성서못자리
지도: 전영준 신부 /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 데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5월 월례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5월2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례: 노인사목팀 담당사제
문의: 02)727-2385, 6 노인사목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5월4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집전:** 김재원 신부(대만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제38회 대한민국가톨릭공직가족피정대회 참가자 모집
대상: 가톨릭 공직자 및 가족, 퇴직자 포함
내용: 복음특강 및 문화공연, 장엄미사
때, 곳: 6월10일(토) 10시30분~17시, 문수체육관(울산)
신청: 5월1일(월)까지 기관별 교우회 총무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 문의: 02)727-2420
때, 곳: 1367차 미사 5월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서포 본당, 마산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5월7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5월1일(월) 13시30분~16시30분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5월2일 · 6월6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 **집전:** 원종현 신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수원가톨릭미술가회 제21회 성미술 소품전: 1전시실
김옥순 수녀 개인전: 2전시실
The Moment, 새로운 시작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3일(수)~11일(목)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및 예비신학생 5월 모임
1)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5월12일(금) 14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123
2)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5월 모임

학년	때	곳	문의
중1	5월7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대성당	010-2742-2123
중2 중3	5월14일(일) 오전 9시		010-9954-2123
고1	5월7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010-9961-2123
고2	5월14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010-9972-2123
고3 일반	5월13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대성당	010-2577-2123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접수: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 참조
때: 4월20일~6월20일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특강) '가톨릭 영성을 통한 가톨릭 믿음과 신앙활동의 다양한 문화'(3주)	최대환 신부
(특강)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법'(4주)	윤제연 박사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국악성가연구소 해외 성지순례

때, 곳: 9월8일~22일(14박15일), 터키-이스라엘

인솔: 강수근 신부 / **문의:** 010-2279-0255

5월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5월5일(금)~7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5월13일(토)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11지구(강남) 성령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30분, 역삼동성당(주차 가능)

미사, 안수 / **문의:** 010-4667-3792 카타리나

5월5일	최용진 신부	5월12일	양창우 신부
5월19일	김인성 신부	5월26일	양홍 신부

'렉시오 디비나 교실' 피정

곳: 양주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주최, 양주시)

문의: 010-5230-2986(cafe.naver.com/monteoliveto)

당일 피정	5월6일(토)·5월19일(금) 14시~17시
9박10일 피정	5월22일(월)~31일(수)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5차	5월12일(금)~20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16차	6월16일(금)~24일(토)	
제117차	7월21일(금)~29일(토)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성경완독	5월12일(금)~20일(토), 7월7일(금)~15일(토)
효소단식	5월25일(목)~28일(일), 6월22일(목)~25일(일)
하늘 ,바람, 나(힐링 피정)	6월9일(금)~11일(일)

5월 피정·미사(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5월3일(수)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이병근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5월6일(토)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김재덕 신부, 이현주 회장

청년 프로그램 / **문의:** 010-5715-1702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수원 분원)

젊은이 쉼피정	5월26일(금)~28일(일) 2박3일 라베르나 기도의 집(평창) / 회비: 6만원
젊은이 해외 선교체험	7월18일(화)~25일(화) 7박8일, 인도네시아 메단공동체 / 선착순 10명

비대면 심리독서모임 / **문의:** 010-7241-2236

때: 6월 매주(월) 9시~12시·매주(토) 13시~16시

각 8명 / **주최:**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삼성산 피정의 집 화요 성령기도회

때, 곳: 매주(화) 21시30분~다음날 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피는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5월6일(토) 16시30분~18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1박2일 무료 치유 피정(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때, 곳: 5월5일(금) 18시~6일(토) 17시,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 **버스운행:** 17시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17시20분 청주고속터미널 앞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제주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때, 곳: 4월25일~27일·5월2일~4일·5월26일~28일·6월4일~6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 **대상:** 개인, 단체(구반장 맞춤 피정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2023년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메시지 468번)

미사: 서상범 주교(군종교구장)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 **강의:** 이범주 신부(서울대교구 자양2동성당), 손무진 신부(대구대교구 전국대표 신부)

때, 곳: 5월5일(금) 9시30분~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 / **문의:** 02)727-2489, 010-3136-7869 천주교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교육

미사와 전례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곳: 흑석동 / 010-4964-5274 제14동작지구오르간교육

수제 묵주 조각 기초부터 완성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과정

때: 6월7일·14일·21일·28일 (수) 14시~16시 / **회비:** 12만원

곳: 씨튼영성센터(서울) / **지도:** 허성준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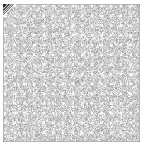
문의(접수): 010-4731-2468 최안나(왜관 성 베네딕도회)

'오르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청년, 직장인 / **카카오톡 ID:** k_orff

때, 곳: 5월9일~30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공지능(AI) 시대와 인격적 신앙



때: 5월28일(일) 10시~17시

곳: 마리스타 교육관

미사 / **회비:** 2만원(중식 제공)

문의: 010-5646-6594 ICPE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유아, 진로, 직업특수, 특수, 평생, 한국어 / **모집:** 4월24일(월)~5월14일(일)

면접: 5월26일(금) 18시30분-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 참조 / **문의:** 02)2164-4173·4176·4787

제1차 프라도 영성 배움터 수강생 모집

대상: 프라도 창립자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을 알고 싶은 신자 / **문의:** 02)853-1105, 010-9751-1758 한국프라도사제회

때, 곳: 6월10일~11월11일 둘째주(토) 14시~15시30분, 명동대성당 내 영성센터 B301호(6개월)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온라인 병행)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6월1일부터 매주(목) 10시30분·19시40분(6주)

곳: 한국CLC 강의실·온라인 Zoom / **회비:** 7만원

5월25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한국CLC

초보자들을 위한 기도훈련(기초반) 모집

대상: 체계적으로 기도를 배우고 싶은이들(선착순 10명)

때: 5월31일~6월28일 매주(수) 19시~21시(총5회)

곳: 바오로딸 서원(명동) 2층 / **계좌:** 우리은행 058-040618-13-402 (재)성바오로딸수도회

회비: 20만원(보조도서 5권 포함) / **문의(접수):** 010-3051-3929 기도훈련 담당 수녀(성바오로딸수도회)

2023년 영적돌봄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과정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원목자, 일반인

때: 6월3일~7월1일 매주(토) 10시~16시50분 / **교육방법:** 실시간 화상 강의(1~4주차), 대면 강의(5주차, 변동 가능)

모집기간: 5월12일까지 / **회비:** 25만원

접수: 홈페이지(hospice.catholic.ac.kr) 참조

문의: 02)3147-8653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고2 / 1년 이상
여름국제캠프	초3~중2 / 남: 시카고, 여: 보스턴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상반기 금요영성특강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1 명례방 / **문의:** 02)3147-2402

5월12일·5월19일·5월26일	기도로 매듭 풀기	박지현작가
6월16일·6월23일·6월30일	성경으로 배우는 상처와 치유	이나미 교수

미사반주자예비반주자 오르간 교육 / 문의: 010-3203-8183
곳: 천호동성당 내 / 주최: 9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MBSR)
내용: 다양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신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요가, 온몸스캔, 정좌명상, 걷기명상 등에 대해 배움 / 인원: 10명~15명
강사: MBSR 지도자·심리학 박사 / 회비: 40만원
때: 5월18일 개강, 매주(목) 19시~21시30분(8회)
문의(접수): 02)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모집

성 김대건 성가단 상반기 정기 단원 모집
대상: 음악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 문의: 010-4197-7441
때, 곳: 매주(수) 19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9지구 가톨릭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대상: 9지구 성당에 교적을 둔 성인 남녀(단, 전공자는 구역예외) / 문의: 010-6325-7982 신일동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우리소리합창단 단원 모집
국악성가 함께 봉사할 단원 모집 / 010-8615-0402
연습: 매주(월) 19시, 전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 출구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2일 / 문의: 010-9836-8998

미사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종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5월1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5월6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때, 곳: 5월5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은총의 겟세마니 성시간·미사초대
대상: 예수성심의 자비와 사랑체험, 성령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분 / 고백과 상담: 18시
때, 곳: 5월4일(목) 19시~21시, 프란치스코 회관(정동)
문의: 010-5782-1875 성 아놀드 얀센 영성센터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쎌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5월6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안내

가톨릭파크골프공동체 회원 모집
대상: 가톨릭 신자 또는 교리교육 중인 분 / 선착순 200명
회비: 연 5만원 / 문의: 010-7173-2114 사무국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성라파엘상담센터
때: (월)~(토) / 문의: 070-4248-7573, 010-3008-4627
법정 저소득 가정(무료 상담) /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분노, 우울, 불안, 부적응 / 심리검사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마뗄암재단강화쉼터 이용 안내
문의: 010-3355-1946, 032)937-7530

암환자 3박4일 무료 피정	(월~목)
암환자·보호자 4박5일 무료쉼터 제공	(월~금)

2023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한낮음악회
때: 5월9일~30일 매주(화) 12시30분
문의: 02)774-1784 명동대성당 반주단

5월9일	강다영	5월16일	김은영
5월23일	박준병	5월30일	최주용

유관단체 알림

한국 키로(CHIRO Korea) 모집
십시일반으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신앙 양성하는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가 승인한 FIMCAP 소속의 키로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대상: 초1~중3(선착순 모집, 인터뷰를 통해 선발)
때, 곳: 매월 첫째·셋째주 10시~13시, 햇살사목센터(주최, 종로구 혜화동) / 문의: 02)744-0840

직원모집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고객지원팀, 활동운영팀
업무: 사무행정, 청소년활동 지도 /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CA) 직원 모집
분야: 연구직원(육아휴직 대체자) 1명
업무: 인성교육 강의, 교재연구 / 대상: 견진 성사 받은 대졸자,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우대
근무: 6월1일~2024년 5월31일 / 자세한 내용은 학교사목부 홈페이지(www.kycs.or.kr/ca) 참조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직자 추천서, 교적 사본
5월1일(월)~19일(금) 17시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5월20일(토) / 면접: 개별 연락
문의: 02)553-7320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육아휴직 대체 직원 모집
분야: 교구 언론홍보 담당 육아휴직 대체 사무원 1명(계약직) / 이메일 문의
근무: 6월1일~2024년 5월31일(12개월)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초대졸 이상, 관련 전공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4월30일(일)~5월12일(금) 18시까지 이메일(commu@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 게재 월로부터 한달 전 첫째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교회기관, 수도회, 인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 신청 내용의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한 단체에서 월 4회까지 게재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내용이나 상업광고는 게재 불가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매월 첫째주(일) 12시30분~16시30분	수녀원(평창동)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5월7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서울)	010-8563-6875, 02)941-4139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성모 성월·가정의 달 추천 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에페 5,2 참조)

신간

새 명상의 씨

토마스 머튼 지음 | 22,000원

20세기 최고의 명상가,
토마스 머튼의 사색과 통찰

우리 내면을 조용히 바라볼 때 싹트는
평화와 기쁨, 사랑의 영적 씨앗

가정의 달 추천 도서

성경은 재밌어요

미사는 즐거워요

자드 말로센느 지음 | 각 7,000원

예수님과 친해지는
놀이책 시리즈

성모 성월 추천 도서

마리아의 비밀

산티아고 마르틴 지음 | 18,000원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함께한 성모님의 고백

소설로 만나는 낯설고도 익숙한
성모님의 진면목

성모 성월 추천 도서

파티마

루치아 도스 산토스 지음 | 16,000원

성모 발현의 목격자,
루치아 수녀의 회고록

교회가 공인한 성모 발현의 기적!
인류를 위한 성모님의 메시지

가정의 달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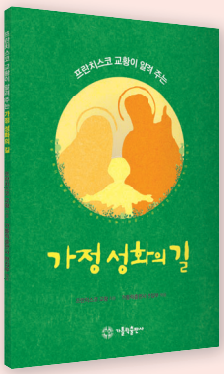
루이와 젤리

엘렌 몽쟁 지음 | 14,000원

가정의 달 추천 도서
우리 시대 성가정의 모습

소박함 속에서 완덕에 이른
소화 데레사 성녀의 부모님 이야기

가정의 달 추천 도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알려 주는 가정 성화의 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3,000원

서울대교구 사목국 추천 도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사랑의 기쁨'

가정 성화는 바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강좌명	수업일시	등 록 수강료	문의처
오르간	매주 목요일 또는 토요일 (개인강습+연습)	매 월 15만원	담당강사 010-8508-9384 (※문자 요망)
전 례 꽃꽂이	매주 금요일 10:00-13:00 (고급반) 매주 금요일 13:00-14:30 (기초반)	3개월 7만5천원	담당강사 010-5302-4593
수 어	매주 목요일 19:00-21:00	6개월 12만5천원	에파타 성당 02-995-7394

※전례꽃꽂이 강좌는 수강료 외 재료비 별도입니다.
※수어 강좌는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 명동대성당 '성서백주간' 추가 모집

본 모임은 백 주간에 걸쳐 구약, 신약 전체를 통독함으로써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모집반 : 구약반 - 금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신 청 : 박 마리아 ☎ 010-8708-0405

◉ 늘푸른 청년전례단 '아뉴스 데이' 신입단원 모집

·주요활동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늘푸른 청년미사의 전례 봉사, 청년봉사분과 활동 참여 및 봉사
·모집대상 : 34세(1990년)~42세(1982년) 천주교 신자로서 매주 늘푸른 청년미사에 참석하고 책임감 있게 봉사할 수 있는 청년
·모집기한 : 5월 8일(월)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게시판 관련 공지에 첨부된 입단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dmd1898@gmail.com)로 접수

※추후 자세한 일정은 모집 기한 후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

◉ 마리아와 마르타 신입회원 모집

기도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함께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활동 : 상·하반기 견진교리·성사 (안내, 접수, 나눔)
본당과 교우의 유대를 위한 제반 사업
·모임 :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 4시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30~40대 가톨릭 신자
·제출 : [①~③]을 kwonilhwan@naver.com으로 제출
① 입단신청서
(☞ 본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게시글에 첨부)
② 견진성사 증명서, ③ 교적증명서
·기간 : 5월 28일(주일)까지
·문의 : 회장 ☎ 010-7622-0418

※추후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드립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8세~12세 가톨릭신자 남아
·문의 : 자모회장 ☎ 010-8802-9003

◉ 성모 성월 꽃 봉헌

과거 서양의 교우 가정에서는 5월 성모 성월이 되면 성모님을 위한 제대를 꾸미고 저마다 집에서 가꾸는 꽃들 중 가장 좋은 꽃으로 그 제대를 꾸미곤 했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성모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 그분이 누리신 기쁨과 영광을 떠올리고 묵상하던 전통을 기리며 본당 사무실에서는 5월 한 달 제대와 성모님을 위한 꽃 봉헌금을 접수합니다.

※꽃 봉헌금도 기부금 처리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병자 영성체 : 5월 3일(수) 오전 9시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에는 정순택 베드로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에 피정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시어 한 달을 힘차게 살아갈 영적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 5월 4일(목) 오후 8시 / 대성전

◉ 2023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한낮음악회

·일시/장소 : 5월 9일 ~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낮 12시 30분 / 대성전
※ 한낮음악회는 명동대성당 오르가니스트들의 파이프오르간 연주회이며, 입장료는 없습니다.

◉ 2023 수도회 큰잔치 '좋기도 좋을시고'

·일시 : 5월 21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장소 : 명동대성당 일대
·참여 : 34개 수도회
·목적 : 수도회 홍보의 장, 수도회 성소자(후원자) 모집의 계기, 신자들과의 친교와 나눔
·행사 :
- 10:00~19:00 수도회 소개 및 물품 판매 / 마당 전체
- 10:00~19:00 수도회 소개 영상 / 꼬스트 홀
- 10:30~12:00 & 14:00~15:30 토크 콘서트 / 소성당
- 13:00~16:00 버스킹 / 마당 입구

◉ '봉사뱅크' 봉사자 모집

·대상 : 가톨릭 교우 (예비신자도 환영합니다!)
·활동 : 주일 오전 10시 미사 및 고해소(평일&주일) 안내
·신청/문의 : 봉사뱅크 ☎ 010-3668-5039
(※문자로 문의 요망!)

✣✣ 기부 천사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4월 17일 ~ 4월 23일 : 100,000원)
누계 : 3,972,766,433원

김 경 희 : 100,000원

기부 천사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신부
수석부주임 전두병(요 아 킴)신부
부 주 임 진슬기(토마스아퀴나스)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신부
보 좌 이철규(아우구스티노)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파노)신부
보 좌 리백진(파비아노)신부

미사 성가	입당 : 51	봉헌 : 221, 218, 512	성체 : 155, 183, 175	파견 : 132

◉ 명동대성당 소속 신학생 & 예비 신학생

서울대교구 대신학교(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수학 중인 본당 소속 신학생은 총 4명이고, 본당 예비 신학생은 총 2명입니다. 본당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이 사제의 길을 잘 준비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구 분		성 명 (세례명)
신학생	신학과 3학년	성일곤 (사도요한)
	군복무 중	장현희 (미 카 엘)
	군복무 중	윤성원 (미 카 엘)
	신학과 2학년	장원희 (율리아노)
예 비 신학생	중학교 3학년	장요셉 (다 니 엘)
	중학교 2학년	조예준 (미 카 엘)

◉ 2023년도 레지오 마리애 아치에스 행사

·일시/장소 : 4월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 대성전
·집결지 : 낮 12시 30분까지 성모동산 집결 후 이동
·대 상 : 명동 레지오 마리애 전 단원
·준비물 : 묵주, 각 Pr. 단기 지참

◉ 명동대성당 가톨릭 영화 상영

·때·곳 : 주일 오후 2시 / 문화관 2층 꼬스트 홀
·대 상 : 성당 방문객 누구나 (전회 무료 상영)
·상영작 : 4월 30일 노래하는 수녀 (The Singing Nun)
5월 7일 루르드 (Lourdes)
5월 14일 초대받은 사람들

※입장권은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선착순 입장 후 자유롭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본당의 날 행사 '님 찾아 나선 길'

2023년 본당의 날을 기념하여 준비한 **'님 찾아 나선 길'** 행사(박달재자연휴양림→배론성지 6.5㎞ 트레킹)에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접수는 지난 주일 오전, 신청 인원이 모두 차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 참가 원하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바랍니다.

※행사 세부일정과 출발 당일 공지사항 등은 추후 주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성모의 밤 》

화창한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본당 주보(主保)이신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온전한 믿음의 한평생을 기리고 본받으며, 이 시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하는 성모의 밤을 아래와 같이 봉헌합니다.

· 일시 : 5월 6일(토) 오후 8시
· 장소 : 성모동산 (우천 시 대성전)
· 주례 :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

※ 추위를 대비해 따뜻한 옷을 준비하십시오.

◉ 5월 예비신자 교리반

5월 교리반 입교 시 세례성사는 11월에 거행되며, **5월 7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 본관 5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금요반	오후7:30	교구청본관 402호	김영우 (스테파노) 신부
주일반	오후4:00	교구청본관 401호	이 마리헬렌 수녀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례 필수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 준비물 :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첫 수업일 : 금요반(5월 12일), 주일반(5월 14일)

◉ 성소 주일 2차 헌금

부활 제 4 주일이자 「**성소 주일**」인 오늘은 성소 계발과 성소자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4/17-4/23).....18,404,130
• 부활 제 3 주일 헌금.....34,617,000
• 감사헌금 (4/17-4/23).....8,503,000

김 모니카 / 김 펠릭스 / 문 엘리사벳
안 요셉 / 오 젤뚜르다 / 우 안드레아
이 사라 / 이 안드레아 / 임 사무엘
최 로사리아 / 홍 헬레나 / 故 이상연 가정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오전 7시, 오전 9시(영어미사), 오전 10시(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오전 11시, 낮 12시(교중미사),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6시, 오후 7시(청년미사), 오후 9시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오후 6시, 오후 7시(늘푸른청년미사)	
평일미사	대성당	월	오전 7시, 오후 6시
		화-금	오전 7시, 오후 6시, 오후 7시
		토	오전 7시
성지미사	대성당	월-토	오전 10시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한국어	토-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화-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월	오후 1시 - 5시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영 어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금	오후 4시 - 6시	토	오후 3시 - 5시